해외출장복명서

기　간:　2014. 9. 6~2014. 9. 14

출장지:　스위스, 오스트리아, 독일

출장자:　이용우, 손학기, 임지영

국토연구원 연구본부명

Ⅰ. 출장개요

1. 출 장 지: 스위스(취리히), 이탈리아(볼차노), 오스트리아(빈), 독일(본)

2. 출장기간: 2014. 9. 6(토) ~ 9. 14(일) (7박 9일)

3. 출 장 자

소속	직급	성명
기획경영본부	선임연구위원	이용우
주택토지연구본부	책임연구원	손학기
국토계획연구본부	연구원	임지영

4. 출장목적

□ 스위스, 오스트리아, 독일의 국토 미래전망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 국토 미래전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

II. 출장일정

날짜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/장소	주요 수행업무	관계자
9.6 (토)	인천 (09:30)	바젤 (17:30)	–	· 이동(항공 및 차량)	–
9.7 (일)	베른	베른	–	· 인구과소지역 및 산악지역에 대한 미래 국토발전 실천전략 관련사례 현지조사	–
9.8 (월)	베른	취리히	· 취리히 연방공과대학	· 취리히 도시권 공간구조사례 현지조사 · 스위스 공간 및 지역발전 관련 연구기법 등 논의	–
9.9 (화)	취리히	볼차노	· EURAC research center	· 스위스 국토발전 미래시나리오 작업틀, 실천방안 도출방법 논의	·Prof. Manfred Perlik
9.10 (수)	볼차노	빈	· Rosinak & Partner · ÖAOK	· 오스트리아 국토발전 미래시나리오 도출방법, 내용, 실천방안 논의	·Helmut Hiess ·Elisabeth Stix
9.11 (목)	빈	본	–	· 이동(항공 및 차량)	–
9.12 (금)	본	본	· 독일연방 건축, 도시, 공간 연구소 (BBSR)	· 독일의 국토 및 도시 발전 미래시나리오 도출방법, 내용, 실천방안 논의	·Dr. Steffen Maretzke ·Michael Zarth
9.13 (토)	프랑크푸르트 (19:45)	인천		· 이동(항공)	–
9.14 (일)		인천 (13:05)		· 이동(항공)	–

III. 수행사항

I. 스위스

1. 스위스 인구과소지역 사례조사
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9. 8(월) 스위스(베른)

□ 스위스 모빌리티 프로젝트(Switzerland Mobility)

- 스위스 모빌리티는 하이킹, 사이클, MTB, 카누, 스케이팅 등 친환경 레저 및 관광자원을 위한 무동력 운송수단의 국가적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연간 25% 성장률로 매년 5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의 수익을 창출함

- 대중교통 서비스 특히, 자전거 운반이 가능한 철도 서비스와 트레일의 국가적 연결과 통합과 하아킹, 사이클 등 무동력 운송수단을 위한 여러 루트가 조성되었으며, 안내시스템의 통합과 루트별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을 이용 편의를 도모함

- 모빌리티의 성공요인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2008년, 하이킹 협회, 자전거 협회 등의 관계 기관들의 협력하여 스위스 모빌리티를 만들었으며, 협력기금의 개인비중이 35-40%를 차지하는 등 정부, 지자체, 관광, 대중교통, 기타 기관, 개인 등의 다양한 영역과 파트너십을 발휘함

그림. 레저별 모빌리티 루트(출처: SwitzerlandMobility)

□ 스위스 뢰첸탈(Lötschental)

- 뢰첸탈은 스위스에서도 가장 인구가 희박한 발레주에 속해 있으며, 페르덴, 키펠, 빌러, 블라텐, 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4개의 독자적인 커뮤니티의 전체 인구가 1,500명에 불과함

-1913년 뢰첸탈 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뢰첸탈 여행 열차가 운행되었으며, 보다 빠르게 지역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함

-뢰첸탈은 하이킹, 사이클링, 노르딕 워킹, 낚시, 스키 등의 관광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으며, 2월 3일에 시작하는 전통적인 카니발로도 유명함

-뢰첸탈의 Lauchernalp mountain의 레전드 트레일은 QR 코드를 활용한 트레일로, 스마트 폰으로 지점에 있는 QR 코드를 인식하며 트레일을 즐길 수 있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함

2. 스위스의 미래국토 발전전망 연구 관계자 면담
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9. 9(화) 이탈리아(볼차노)

□ 참석자: Prof. Manfred Perlik

□ 주요 논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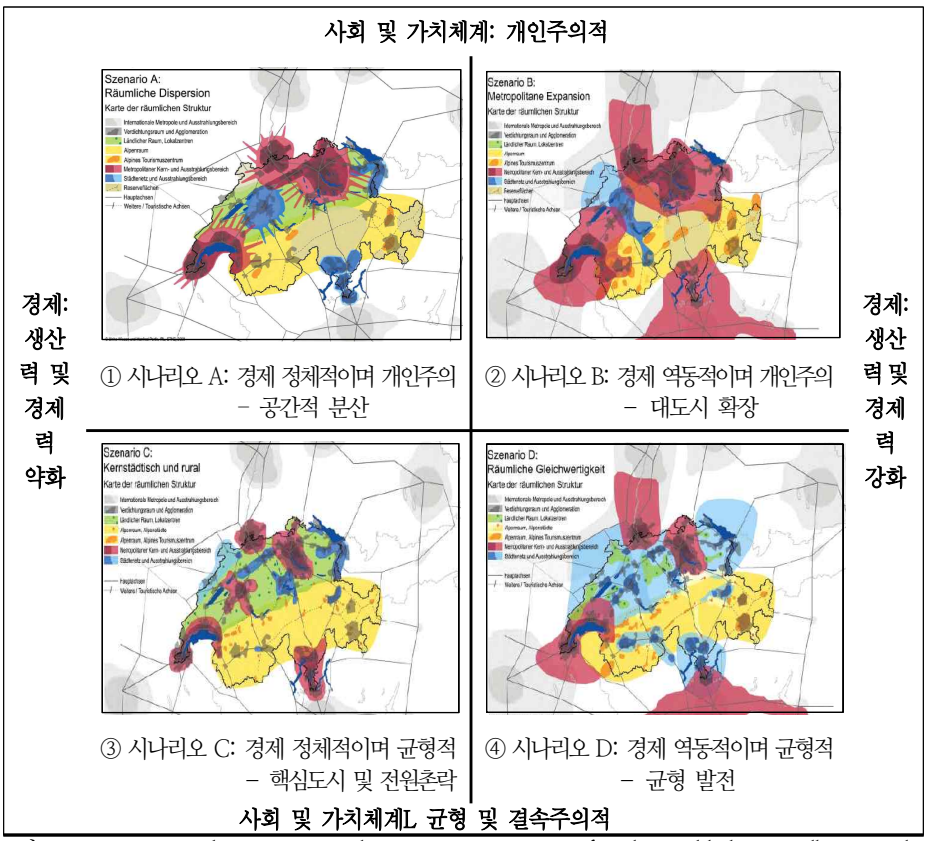
- 스위스 국토발전 미래시나리오 작업틀, 실천방안 도출방법 논의

- “스위스의 지속가능한 정주발전과 인프라 발전을 위한 시나리오 (2005-2030)”의 주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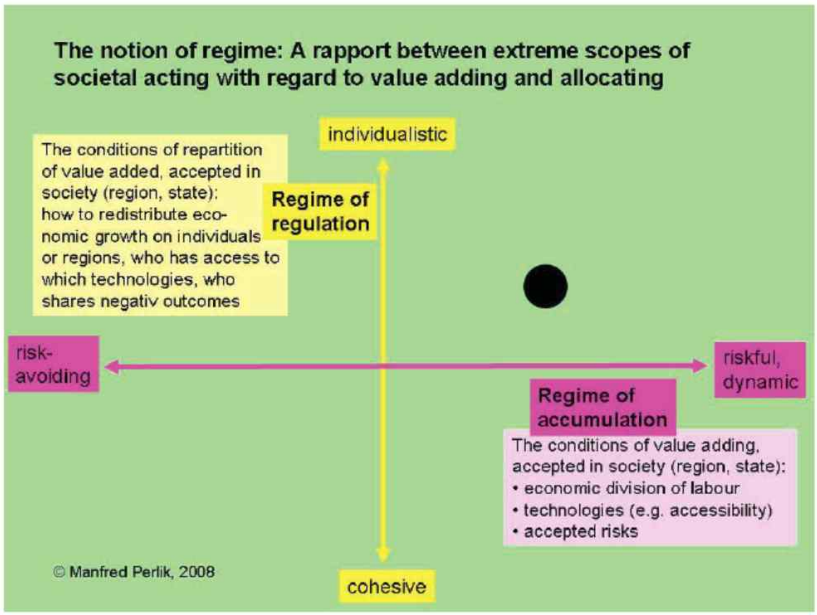
·시나리오 도출 관련 변수선정 방법 등 도출틀, 공간분석 및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방안, 시나리오 관련 정책제언 등 및 추진전략 도출방법 등

- 시나리오 축 설정에 관한 질문

<그림> 스위스의 취락 및 인프라 지속가능한 발전시나리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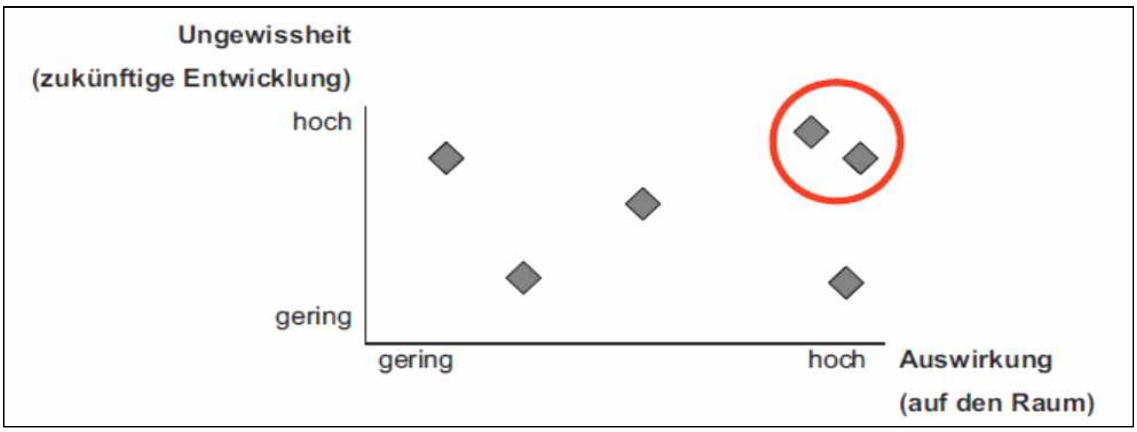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, 2008, Szenarien fur die nachhaltige Siedlungs-und Infrastrukturentwicklung in der Schweiz(2005-2030)



o 스위스 국토발전 미래시나리오 작업틀, 실천방안 도출방법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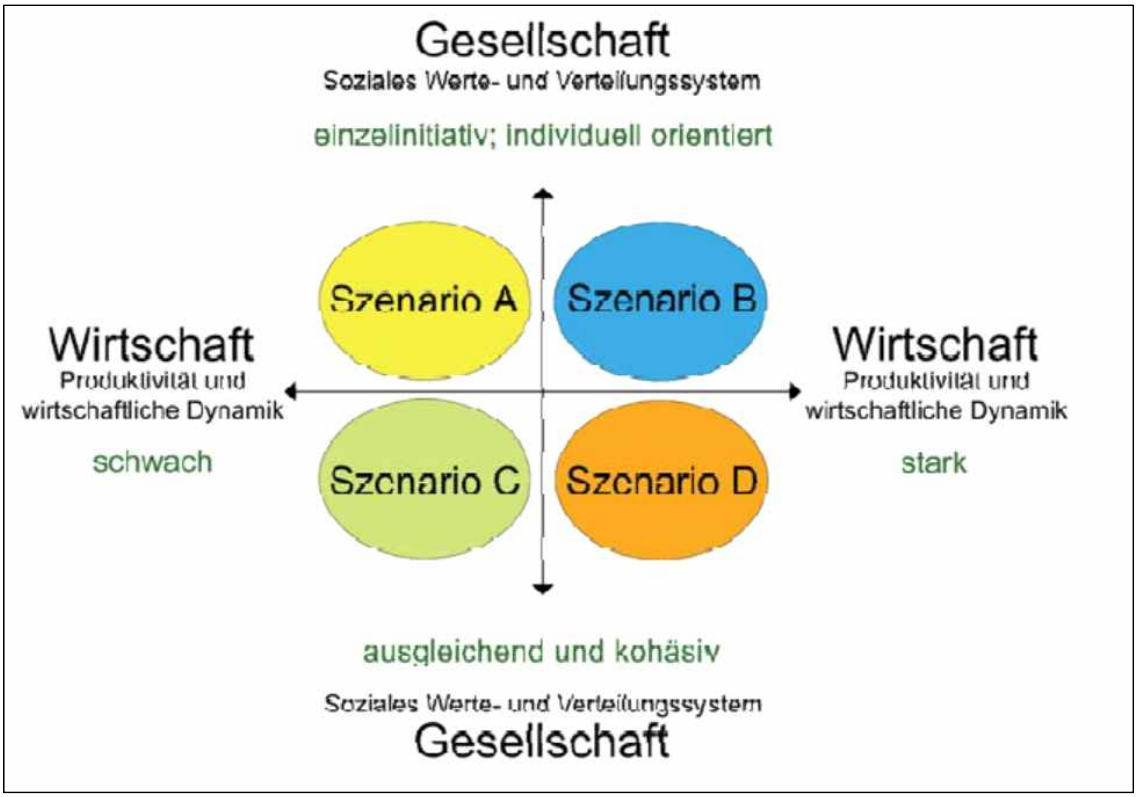
- 축적체제와 조절체제는 교차하는 축으로서 대조가 되고, x축과 y축으로부터 좌표체계가 발생
- 4개의 사분면은 각각 2개의 상이한 축적체제와 조절체제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4개의 시나리오 구성을 가능케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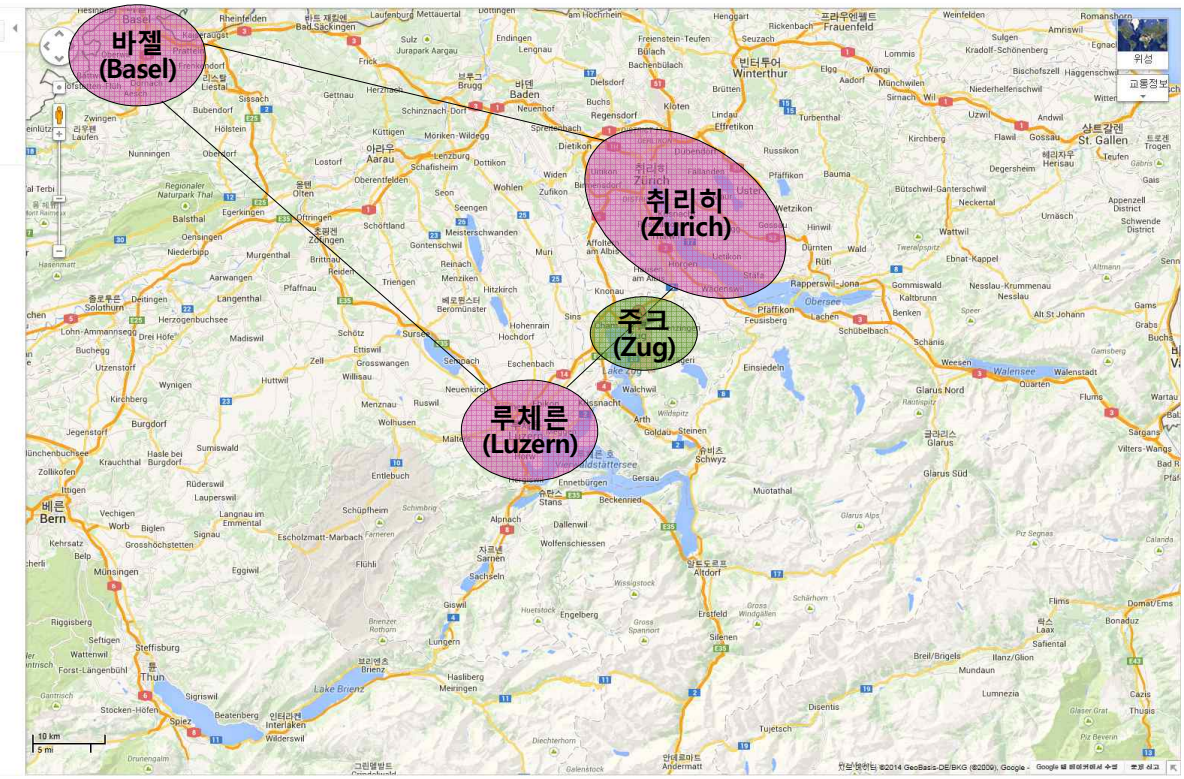
Ungewissheit: 불확실성
(zukünftige Entwicklung): 미래의 발전
gering (낮음) hoch (높음)
Auswirkung: 영향
(auf dem Raum): 공간상에서

그림. 높은 불확실성과 공간상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춘 추동력의 선택

o 축들에 의해 구성된 4개의 시나리오들은 우선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
- 어느 시나리오도 그 자체로서 좋거나 나쁘지 않고, 양 축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, x축 혹은 y축의 마이너스인 부분에서 지칭도 포지셔닝도 지속가능성 혹은 바람직함과 관련하여 선험적으로 근본적인 단점을 의미하지 않음
- 그래서 마이너스인 x축이 단순히 성장이 약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한 두 개의 시나리오들이 특수한, 사회적으로 합의된 근본 태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이것은 결코 "우수사례/나쁜 사례" 시나리오가 아니고, 낙관적이지도 염세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시나리오들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
o 시나리오 결과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오히려 이것을 피해야 할 것인지 라는 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(Postma/Liebl, 2005)
- 그러나 4개의 시나리오들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권고사항이 발생
- 이것은 대개 (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에 걸맞게) 자기강화의 트렌드를 파괴하고 반대의 경향으로 추진해야 함



3. 스위스 도시권 사례조사 ZUG



□ ZUG

○ 스위스의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취리히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추크(Zug) 칸톤

- 스위스 26개 칸톤 중에서 가장 작은 239평방 킬로미터(고양시 규모)에 115천명이 거주
- 주민 4명중 1명이 외국인으로 생활수준이 높고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

○ 칸톤 인구의 25%는 외국인으로 이중 88%가 독일 등 유럽에서 왔음

- 농장과 목초지를 지나 목가적인 추크호수를 따라 칸톤 주도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"128개국 주민과 함께"라는 환영 표지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엔회원국이 193개 국가임을 고려할 때 놀라운 숫자임

○ 스위스 연방보건기구에 의하면 추크에 사는 주민들의 92%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변

- 추크는 1.9%의 실업률,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스위스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
- 2011년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세금, 교육, 인력, 교통 등을 반영한 칸톤별 비교에서도 스위스에서 최고의 지역으로 조사됨

○ 철도,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과 유리한 조세 도입이 오늘날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

- 역사적으로 대부분이 농업토지였던 19세기에 추크는 스위스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 중에 하나였으며 면과 우유가공이 전부였던 이 지역은 1960년대에는 국가 평균 이하의 소득으

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부채를 보유했으나 교통의 발달로 빈곤에서 부유한 지방으로 탈바꿈 하였음

o 추크는 비즈니스 센터인 취리히와 관광지인 루체른에서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, 재정적, 정치적, 사회적으로 늘 안정되어 왔음

o 스위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추크 주민들은 평균 40세 이하이며 10%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님

o 1975년 3,900개사 35천명 고용에 지나지 않았던 추크는 오늘날 1만7천개의 법인을 포함하여 3만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여 8만3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부촌의 요람이 되었음

- 이는 추크의 매력적인 낮은 세율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
- 추크의 법인세율(자본세율 포함)은 13.6%로 스위스 평균 26.8%, 영국, 독일, 프랑스 30% 이상에 비하여 파격적인 것임
- 상품거래, 도소매유통, 제약·화학, 의료진단, 하이테크, 금속가공, 스포츠마케팅,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글로벌기업의 터전이 되었음
- 세계적인 미국의 제약그룹 Johnson & Johnson, 미국 생명공학 개척자 Amgen, 독일 전자제품 Siemens, 세계 최대의 상품 및 자원거래기업 Glencore, 글로벌 식품그룹 Nestle 같은 기업들이 모두 추크에 소재하고 있음

o 추크 당국은 투자기업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제공하고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행정규제를 없애는 등 단순하면서 비관료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

- 추크에서는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개인소득세가 40~50% 수준인 독일, 프랑스 등 인접 국가들에 비교하여 절반수준인 23%
- 지방 세입을 높여 주민들을 위한 교육, 안전, 레저 등 사회복지에 이용하고 있음
- 관광산업의 GDP(국내총생산) 기여율이 5%에 불과한 스위스가 금융, 제약, 금속정밀기계, 시계, 식품 등 주요산업에서 100여 개사의 강소기업과 글로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
- 여기에는 낮은 세제, 행정의 단순화 및 비관료적 지원으로 유럽 1위의 R&D 투자(GDP 기준), 세계 10위의 특허출원,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, 인적자원 개발과 글로벌 인재 활용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기여하고 있음

o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스위스는 칸톤별 다른 세제, 교육보조금, R&D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방특색에 맞는 산업을 유지, 발전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

- 창업이나 기업 유치 없이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율과 규제를 낮춰서 빈농지역을 완전고용의 부유한 행복도시로 창조한 추크에서 타산지석을 찾았으면 함

Ⅱ. 오스트리아

1.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9. 10(수) 오스트리아(빈)

□ 참석자: Helmut Hiess(Rosinak & Partner ZT GmbH CEO), Elisabeth Stix(ÖAOR)

□ 주요 논의내용

· “오스트리아 국토발전 시나리오 2030” 관계자 면담

· 오스트리아 국토발전 미래시나리오 도출방법, 내용, 실천방안 논의

2. 세부 논의 내용

□ 국토발전 미래 시나리오는 왜 작성하는가?

- 국토공간정비회의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트렌드와 공간적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그것들의 사고가능한 상호작용을 평가할 것을 요구함. 또 국가를 뛰어넘어 유럽차원에서 시대에 걸맞은 국토공간전략을 끌러낼 것을 요구

- 한편,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공간 발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함. 이것은 인구추정 등 단순 미래예측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의 공간발전 확인

- 한편,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공간 발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함. 이것은 인구추정 등 단순 미래예측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의 공간발전 확인. 특히 부분이 아니라 통합된 미래의 공간시나리오를 강화하고자 함

- 현재의 공간정책에 대한 전략을 끌어내고 ÖROK과 하위 조직의 미래 작업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□ 오스트리아 공간발전 시나리오 작성과정 중에서 「주제별 발전시나리오의 고려 및 기술」의 36개 분야 선정 및 내용 기술은 어떻게 이루어졌나?

- 먼저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9개 분야(제도적 규범, 경제, 에너지, 농업/임업, 교통, 관광, 환경, 인구, 사회)를 전문가 회를 통해서 정하고 각 분야별 4개의 시나리오를 정함으로써 36개 분야가 됨

- 각 분야에 대한 미래 브리핑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정부나 특정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내용임

-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과 소통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간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예상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

□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등 정량적인 접근법이 이루어졌는가?

- 정량적인 접근법보다 다수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시나리오 내에 제시

□ 시나리오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?

- 공간발전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원인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시나리오 중 3개에서 일치된 공간발전을 '특별히 적합하고 개연성이 있는 공간발전들'로 구분하고 7개를 제시

· 정주부지 수요 증가에 의해 토지는 집적지역과 지역중심지들에서 부족; 원인: 인구 성장/인구유입/ 경제적 구조변동/ 높은 에너지비용 및 이동비용/높은 토지가격 및 부동산가격

· 천연자원 (식량, 에너지식물, 목재, 광물자원)의 수요 증가에 의하여 농촌에서 토지가 부족; 원인: 인구 및 경제성장, 에너지 가격, 소비행태

· 노하우, 헤드쿼터, 가치창출, 구매력, 주민, 일자리, 관광객, 기초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초지역적 및 지역적 입지경쟁; 원인: 세제시스템, 재정균등화, 인구변화, 일자리변화, 관광변화

· 겨울에 안정적으로 눈이 있는 고지대와 여름에 알프스의 고산지에 관광의 확대; 원인: 기후변화와 관광객을 둘러싼 입지경쟁

· 집적지역, 중심부지역,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강력한 인구유출, 인구감소, 고령화; 원인: 인구변화, 경제구조, 이동비용, 라이프 스타일

·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촌락들이 교외화 및 주변부의 주거지와 통근지역. 경지는 소수의 농기업들에 의해 운영; 원인: 농업 및 임업, 공업과 상업에서 낮은 고용률

· 새로운 월경적 기능지역- 중심지역은 그들의 배후지를 확장- 주변부 지역은 중심부지역으로 통합; 원인: 역내시장, 유로화, 쉥엔(조약)지역의 확장

-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결과 혹은 양적 차이를 보이는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공간발전 중에서 4개 시나리오 중 3개에서 일치된 공간발전을 '특별히 적합하지만 불확실한 공간적 발전들'로 구분하고 7개를 제시

· 더 많은 자동차 교통과 대중교통과 자전거에 의한 장거리 혹은 단거리?(2005-2030: +50% ~-25% 자동차-km/연간); 원인: 이동비용

· 자본력이 있는 관광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관광의 성장 혹은 위축

(2005-2030: 숙박일 수 +40~-20%) ; 원인: 이동비용, 소득의 변화

· 수력, 풍력에너지, 태양에너지의 광역적 혹은 선택적 개발; 원인: 에너지비용, 기후변화

· 얼마의 젊은이와 이민자들이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?

(2005-2030: 20세 이하 +8 ~-33%, 특히 강하게 집적지역과 중심부지역 외부에서 젊은이의 감소, 집적지역과 중심지역에 이민자들의 집중); 원인: 출생률, 인구이동, 경제변화

· 얼마의 피고용자들이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?

(2005-2030: 피고용자 수의 +27% ~-8% 특히 강하게 집적지역과 중심부지역 외부에서 감소); 원인: 경제변화

· 얼마의 정주부지가 어디에 필요하게 되는가?

(2005-2030:정주부지 +5%~+28%, 주택 연간 +25,000~+75,000戶(2005: 연간 50,000戶),

집적지역과 중심부지역 및 그 배후영역(이동비용에 따라 10~30km)에서 특별히 수요가 강함); 원인: 인구변화, 이동비용, 경제변화, 지가

· 초지 혹은 삼림?(2005-2030: 초지 -20%~-6%, 삼림 +2%~+9%); 원인: 농산물거래의 자유화,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발전

□ 시나리오의 기회와 위협의 기준은 무엇이며 기회와 위협의 예는 무엇인가?

- 앞서 도출한 공간발전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존 계획에 비춰 볼 때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판단함. 기회와 위협의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. 하지만 시나리오로부터 특별한 행동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음

- 기회와 유협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도출되었으며, 조정하는 조치들이 없다면 기회는 단지 불충분하게 활용될 것이며 위협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의 첨예화롤 이어짐

7개 기회

· 허브로서 오스트리아

유럽 핵심 경제공간(소위 PENTAGON: 베를린-함부르크-런던-파리-밀라노)의 동유럽과 남동부유럽으로 확대. 물류 입지로서의 오스트리아

· 높은 환경 기준과 안정기준을 가진 활력넘치는 중심

최고의 두뇌, 혁신적인 기업,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기업 본사를 둘러싼 경쟁에서 문화, 교육, 환경, 경관, 안정에서 입지적 우위

· 바이오매스에 기반을 둔 질적 가치창출의 공급사슬의 개발: 식품, 에너지, 목재

· 에너지 자급자족 지역: 수력, 풍력, 바이오매스, 태양

·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과 환경기술의 입지: 철도, 수로, 청정대기, 에너지 효율성

· 기후변화의 승자로서 관광의 목적지로서 오스트리아; 시원한 여름과 비

· 다중기능성과 소규모 공간단위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임

7개 위협

· 도시의 스프롤, 차량 지향의 정주구조, 높은 인프라 비용, 정체비용과 환경비용; 원인: 낮은 이동비용, 중심부의 높은 지가

· 도시와 농촌, 강한 입지와 약한 입지 사이에 공간적 격차의 증대; 원인: 차량 시스템(차량보급+도로망+저렴한 연료)을 통한 접근성 개선 시대의 종말, 고속철도+ 항공기는 중심지에 유리하게 작용; 지식기반경제의 극(極)으로서 중심부로 두뇌유출

· 높은 외부 비용(교통, 환경, 공지)을 보유한 준최적 입지개발; 원인: 세제시스템과 재정 균등화에 의한 입지경쟁

· 천연자원의 과도한 이용. 자연보호의 후퇴, 종의 다양성 상실, 토지이용 갈등; 원인: 에너지 비용, 기후변화, 인구성장, 관광

· 민족-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거주지 분리, 출입금지 구역(No go Areas), 빗장화된 사회 (Gated Communities); 원인: 비유럽 이민자 유입, 높은 지가 및 부동산 가격, 높은 임대료

· 불안정한 공업 및 상업입지; 원인: 글로벌 경쟁, 임금과 물가의 격차, 에너지 비용, 기후변화 결과의 비용

· 기초서비스 철폐, 특별히 작은 마을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배후지에서 서비스 질의 상실; 원인: 규모의 경제, 인구 유출, 소비패턴, 이동비용

□ 기회와 위협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가?

- 적합한 공간발전과 기회와 유협으로부터 한편으로 공간정책 자체로부터 또한 공간유관적합한 부문정책이 직면하는 전략적 도전을 도출하는 것

- "오스트리아 국토발전 시나리오 2030"에서는 구체적 전략, 주치, 수단을 구체화하거나 혹은 세밀하게 정교화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

- 위의 구체화는 다음에 이어 이루어질 '오스트리아 공간발전구상 2011'에서 이루어짐

공간정책에 대한 7개 전략적 도전

· 공간정비정책과 부문발전 계획이 어떻게 지역적 레벨에서 결합될 수 있는가?

· 새로운 전략적 과제로서 토지 관리: 토지이용의 정도, 강도, 제한, 시간적 디자인과 제한 그리고 활동에 관하여 이용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어떻게 갈등이 극복될 수 있는가?

· 계획과 토지소유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조정될 수 있는가? 어떠한 토지정책적 전략이 공간정책을 행동가능하게 만드는 가?

· 집적지역과 중심지들로부터 떨어진 농촌지역의 경우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 할 수 있고/대응해야 하는 가?

· 어떠한 反거주지 분리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?

· 어떻게 공격적 지역정책 전략으로 새로운 월경적 기능공간에 대응할 수 있을까?

· 성공의 조건으로서 협력을 위한 규범적 조건의 디자인, 자원의 수요를 가진 활동으로서 협력의 관리, 수단으로서 균형적 메카니즘의 개발

국제적 또는 국가적 부문정책에 대한 7개 전략적 도전

· 세계 무역에서 어떻게 사회적, 생태적 표준이 도입될 수 있는가?

· 어떻게 특별히 농촌지역에서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?

· 어떻게 화석 에너지의존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이탈이 성공할 수 있을까?

· 어떻게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이 정의되어야 하는가?

· 어떻게 교육과 연구가 지식기반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가?

· 어떻게 사회정책과 보건정책은 분산화 된 기초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?

· 어떻게 공지에서 천연자원의 이용, 관광개발, 자연보호, 자연재해의 관리가 부문을 초월해서 최적화 될 수 있는가?

Ⅲ. 독일

1. 독일의 미래국토 및 도시 발전전망 연구 관계자 면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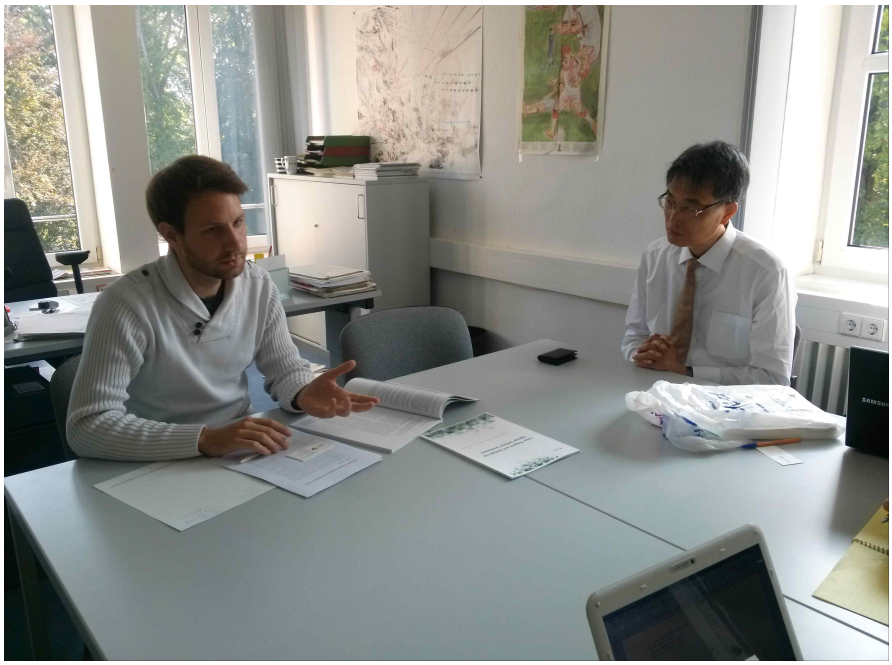
□ 일시 및 장소: 2014. 9. 12(금) 독일(본)

□ 참석자: Dr. Steffen Maretzke 및 Michael Zarth(독일연방 건축, 도시, 공간연구소, BBSR)

□ 주요 논의내용

- “국토발전 시나리오 : 독일의 공간 및 취락구조 2015/2040” 연구 관계자 면담
- 공간분석틀, 공간시나리오 도출방법 및 시각화 방안, 정책제언 도출방법 등
- 독일의 국토 및 도시 발전 미래시나리오 도출방법, 내용, 실천방안 논의
- “도시발전 시나리오 및 비전” 연구 관계자 면담

·시계열적 시나리오 작성방법, 거주/노동/교육/여가/쇼핑 등에 대한 미래모습 도출방법 등



□ 독일 (공간발전에 대한 시나리오들 –2015/2040 독일의 공간구조와 정주구조)

○ 독일영토의 미래 공간조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데 있음

○ 확고하게 취득한 정보의 바탕위에서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능한 것에 대한 사실적인 평가로 분석적으로 준비

○ 중기, 중~장기, 중기~먼미래의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누어 미래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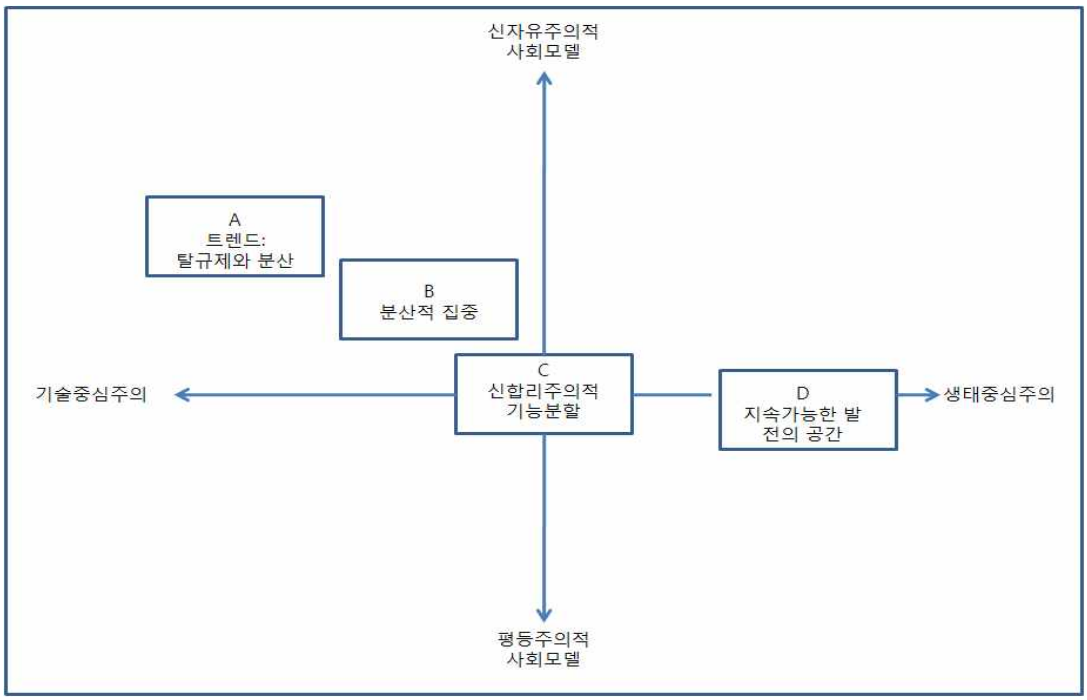
- 각 시기별로의 미래전망 방법은 다르며, 추동력도 다름

□ 중기~먼 미래 전망 예측

○ 연방공간정비법의 최근 판(1997)에 따르면 공간발전의 지속가능성은 공간정비의 과제의 실현에서 중심적인 지도원리를 형성

○ 공간정비법과 관련하여 네 개의 시나리오에 (각각의 시나리오의 각각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에 일치하는) 특징적인 정책적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배속

〈그림〉 시나리오 A-D의 귀속과 근본적 행동지향의 차원에 대한 지속가능성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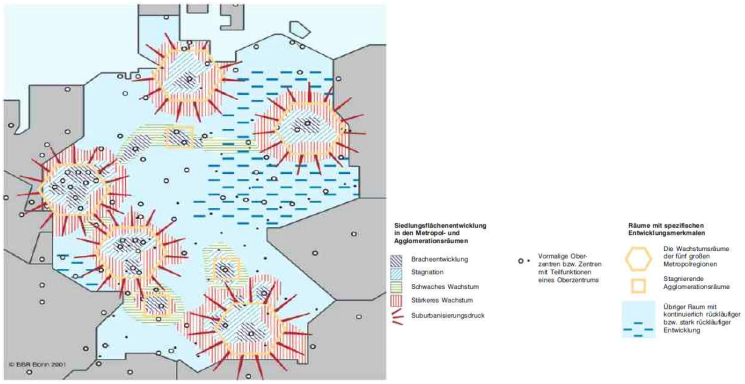


○ 장기 시나리오 트렌드: 탈규제와 공간구조 및 정주구조의 양극화 (A)

- 대도시권의 정주팽창은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강력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광범위하게 농촌공간으로 움직임

- 여기서 중핵지역과 전통적 특징의 사이도시 주위에 월계관 형태로 인구수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있다: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원심적인 주거입지 관련 도피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

〈그림〉 시나리오 A 공간적 개념도



○ 메트로폴리스와 집적지역에서 정주부지 발전

- 유휴지의 개발, - 정체, 약한 성장, 강력한 성장, 교외화의 압력

○ 과거의 고차중심지 내지 고차중심지의 부분기능을 갖춘 중심지

○ 특수한 발전의 특징을 보유한 지역들

- 5대 거대 대도시권의 성장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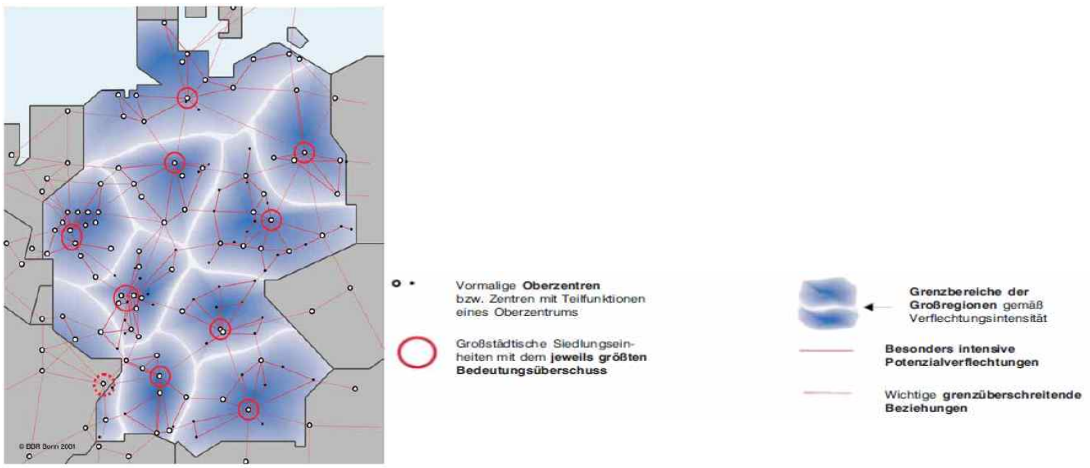
- 정체하는 집적지역

- 지속적으로 역행하거나 내지는 강하게 역행하는 발전을 보이는 나머지 지역들

□ 장기시나리오: 내부적으로 다중심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“책임의 광역공간”의 사회와 공간(B)

○ 거대지역과 다핵 네트워크

〈그림〉 시나리오 B 공간적 개념도



○ 과거 고차중심지 내지 고차중심지의 부분기능을 보유한 중심지

○ 각각의 최대 도달범위를 가진 대도시적 정주단위

○ 연관관계의 강도에 따른 거대지역의 한계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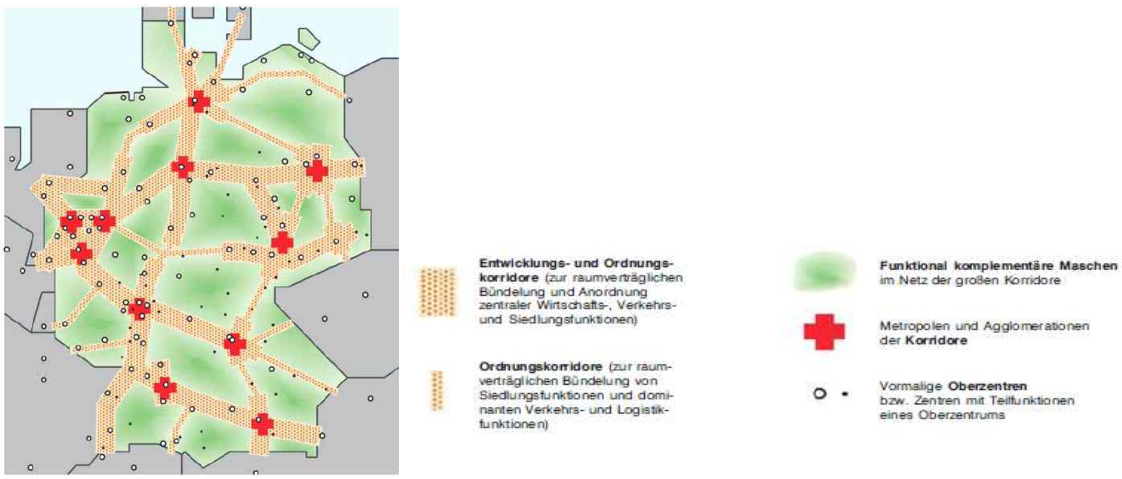
○ 특별하게 강력한 잠재적 연관

○ 중요한 越境的 관계

□ 대안 시나리오: 합리적 조정 및 사회적 안전의 사회와 공간발전 (C)

○ 고밀도 회랑과 새로운 공간기능적 분업

〈그림〉 시나리오 C 공간적 개념도



○ 발전회랑 및 정비회랑 (중심적인 경제-, 교통-, 정주기능들 공간 친화적 연계와 배치를 위한)

○ 정비회랑 (정주기능과 지배적인 교통 및 운송기능의 공간친화적 연계를 위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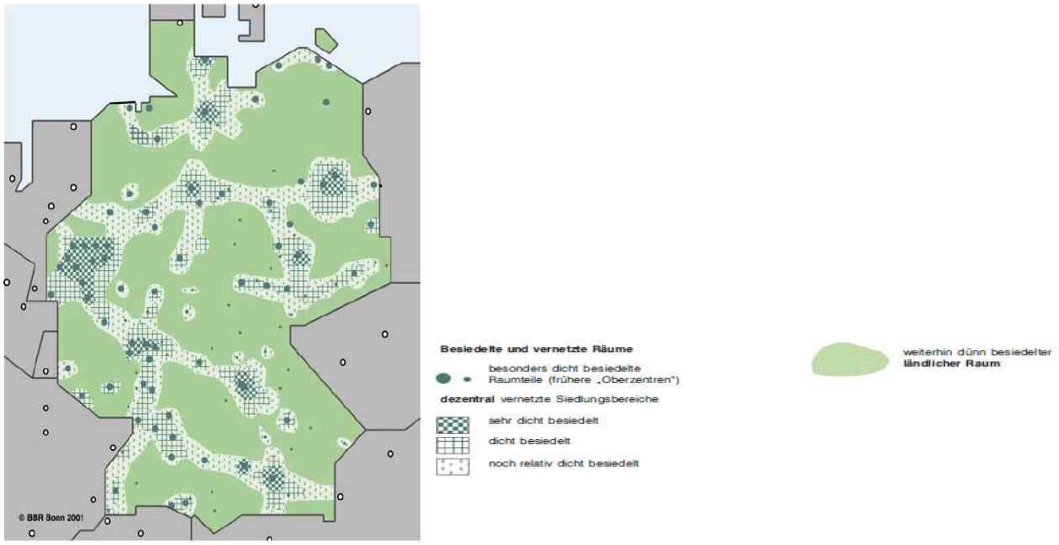
○ 거대 회랑의 네트워크에서 기능적으로 보완적인 망(Masche)

○ 회랑의 메트로폴리스와 집적지역

○ 과거 고차중심지 내지 고차중심지의 부분기능을 하는 중심지들

□ 대안적 시나리오: 지속가능성의 사회와 공간구조 (D)

〈그림〉 시나리오 D 공간적 개념도



○ 거주되고 네트워크화 된 공간

- 특별히 조밀하게 거주되는 공간부분(과거 “고차중심지”)

○ 분산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정주영역

- 매우 조밀하게 거주
- 조밀하게 거주
- 여전히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거주
- 여전히 낮은 정주밀도의 농촌 공간

□ 장기 시나리오 실천전략 도출

○ 인구를 둘러싼 다가오는 지역간 경쟁의 편성을 위해 지역의 매력성을 상승시키는 수단들이 제시

(1) 일자리 관련 조치들

○ 전일제 탁아의 확대는 “순전히 보관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데리러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갖추고 상담서비스, 가사도움과 주간도움이 맞물리는 어느 정도 “사회적 기업”

(2)이민관련 조치들

○ 강력해진 인구유입을 위해 토착주민의 수용준비자세를 높이는 것이 (잘 이해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) 또한 지역레벨에서 중요

(3) 연령구조관련 보완하는 수단들

○ 기업에서 평생학습의 현실화를 통해 지식기반의 지속적인 최신화: 새로운 지식은 현대적인 자격을 갖춘 젊은 후속세대인력의 “구매”를 통하여 점점 덜 통합된다면, 기업의 자격기반의 케어와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게 된다. 더 많은 그리고 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용인들이 미래에 기업의 고등훈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편입

○ 일방적인 전문화를 예방하고 대신 기업의 궤도형성의 틀 내에서 궤도에 동반적인 활동 및 요구의 변화를 통해 능력개발과 유연성의 체계적 지원